

문화적 역량 비판 담론에 관한 사회철학적 분석*

김기덕

(순천향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을 이론적 도구로 하여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급진적 비판 사회복지이론, 특히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비판사회복지이론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비판담론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토대의 근거와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억압과 통제를 지적한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별도의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사회복지의 한 가지 태도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가진 사회철학적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이들 담론들은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주제어 : 문화적 역량, 다문화주의, 비판사회복지, 포스트모더니즘

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사회복지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둘러싼 담론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문화적 역량의 본질과 구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문직이 전통적인 역량과 더불어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더 많은 공감을 얻어오고 있다. 인간의 정체성(identity)은 인종, 민족, 종교, 성, 지역, 계급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되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은 자기 존중(self-esteem)과 자기 확신(self-confidence)과 관련된 인간의 본원적 욕구이자 사회적 권리라는 정치철학적 주장(Taylor, 1994)이야말로 문화적 역량 개념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인간관련 서비스 전문직(Human Service Profession)이 문화적 욕구와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응에 무능하여 클라이언트와 문화적 간격(cultural gap)을 보인다면 그 경우 수행되는 실천적 개입은 당연히 효과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다(Bonder, Martin, Miracle,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전문직이 자신의 실천 활동과 교육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문화적 역량을 사회복지 윤리의 핵심가치와 원칙으로 설정한 것(NASW, 2001; CSWE, 2003)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현재 미국의 사회복지전문직은 다양한 실천 영역과 실천대상을 중심으로 개념 연구에서 모델개발 및 척도연구에 이르기까지 다문화주의 사회복지실천 및 문화적 역량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와 실천을 수행하고 있으며(Gutiérrez, Zuñiga and Lum, 2004; Rothman; 2008), 최근 들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하면서 다문화적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들이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다(김연희, 2007; 2006; 김범수 외, 2007; 민성연, 2008; 최원희 외, 2008; 최명민 외, 2009; 최소연, 2010).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상식적 차원이나 전문직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Goldberg, 2000; Gross, 2000; Dean, 2001; Patni, 2006; Iglehart and Becerra, 2007; Johnson and Munch, 2009; Parrott, 2009; Pon, 2009)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은 다문화사회복지와 문화적 역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개진과 아울러 바람직한 실천 전략을 모색하려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심각한 우려와 고민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우려와 고민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다시 말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사회복지전문직의 문화적 역량 강화 흐름에 대해 최근 들어 이렇게 활발하게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규명이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 담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러한 비판 담론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철학, 그 가운데에서도 현대 정치철학과 사회철학의 이론적 자원들과 아울러 이러한 이론들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회복지 이론들을 문제 인식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Allan, Pease, Briskman, 2003; Hick, Fook, Pozzuto, 2005; Gray and Webb, 2009). 수행된 연구 결과를 미리 말한다면 문화적 역량을 둘러싼 비판 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문화, 자아, 정체성, 권력, 지식 등 현대사회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사회철학의 비판적 전통 특히 푸코(M. Foucault)와 데리다(J. Derrida)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철학적 차원의 한계와 쟁점들이 문화적 역량이라는 사회복지차원의 실천적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전개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전문직이 견지해야 할 문화에 대한 적절한 입장 모색과 아울러 바람직한 문화적 역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국 사회복지 분야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물론 이 연구는 분석의 대상이 주로 미국에서 진행된 논의들에 한정되어 있어 다문화주의가 일찍이 발달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 진행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상당 부분 미국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영향 아래 있다는 판단 아래 본 연구가 한국의 사회복지학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사례연구(Creswell, 2003)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다문화 역량 개념과 그 비판적 담론

1) 다문화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러한 비판적 논의의 대상인 문화적 역량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전개와 관련하여 유용할 것 같다. 문화적 역량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역량의 합성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culture)란 사회 속의 다양한 집단이 견지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행위, 신념, 가치 및 기술에 대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Gordon, 1978), 특정 집단의 내부에서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총체적인 삶의 유형이다(Lum, 2007: 4). 그리고 최근 들어 문화의 개념은 단순히 특정 민족과 인종과 관련된 집단적 정체성(group identity)이라는 좁은 개념규정을 넘어 장애를 가지거나 상이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혹은 동성애자거나 성전환자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NASW, 2001).

역량(competence) 개념에는 충분성(sufficiency), 적절성(adequacy) 그리고 능력(capability)이란 하위개념들이 포함되며 이는 문화적으로 통합된 행위 유형의 맥락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Lum, 2007: 6). 특히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규정은 역량 개념을 실천에 적용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통한 전문적 수월성의 향상으로 정의하면서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core value) 가운데 하나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NASW, 1996; 2001).

이러한 개념들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화적 역량 개념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문화의 교차 상황(cross-cultural situation)에서 효과적인 실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기관, 전문가들이 소유한 일련의 실천기술, 행위, 태도 혹은 문화를 넘나

들며 효과적으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1997; Lum, 2007에서 재인용).

미국의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역량 연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인 Sue와 Lum은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를 인식(awareness), 지식(knowledge), 기술(skill)로 구성하거나(Sue, 2005: 29), 혹은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지식획득(knowledge acquisition), 기술개발(skill development), 지속적인 귀납적 학습(inductive learning)이라는 4가지 연속적 속성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다(Lum, 2007).

Lum의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적 역량이라는 지적이면서 전문적인 수월성의 발달은 먼저 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cultural self-awareness)의 고양으로 출발한다.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사회복지전문가는 무엇보다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타인과의 접촉, 문화적 배경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획득 전망과 함께 일련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문화적 지식이란 전문가가 제공할 서비스의 경계를 알려줄 사실과 원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가는 이러한 지식을 실제 서비스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역량을 가진 전문가는 귀납적인 학습과정(inductive learning process)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결국 문화적 역량이란 자신과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식, 지식, 기술 획득과 관련된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¹⁾.

2) 다문화 역량에 대한 비판 담론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은 크게 사회복지전문직이 문화적 역량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의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론적 비판, 이처럼 존재할 수 없는 역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전문직 실천과정에서 작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규범적 문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다문화 역량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인식론적 비판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 담론은 주로 사회복지전문직이 문화적 역량을 획득하는 것이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론적 비판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한 비판의 핵심은 특히 문화적 역량의 주요 개념 요소인 다문화적 지식의 획득과 활용을 겨냥하고 있다. 즉 이들 비판 담론들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삶과 관련된 문화적 상황을 타당성 있는 지식(knowledge)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문직이 문화적 집단에 대해 특수화된 이해와 지식을 발전시

1)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 지식, 기술의 문화적 역량이 어떻게 규정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연희(2007)를 참조하시오.

킬 수 있으며 이를 전문직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NASW, 2001)는 근원에서부터 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적 근거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비판담론에 의하면 정체성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지식 차원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타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해당 문화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집합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견지하면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McGoldrick et al., 2005; Yan and Wong; 2005).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타당성 있는 지식은 주어진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해당 문화의 당사자들의 기여 없이는 도저히 얻어질 수 없다는 지식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전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충실히 따른다면 사회복지사는 근본적으로 문화적 역량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화적으로 역량 부족(lack of competence)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타문화에 대한 접근의 기본방향과 근본 목적은 지식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Dean, 2001: 624).

둘째, 문화적 역량에서 차지하는 지식의 위상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인식론적 비판은 문화와 관련된 지식은 언제나 현장과 맥락 중심의 개별적인 것인데 반해 사회복지사들이 이론적 공간이나 실천적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과거의 학습과정에서 얻어진 특정 문화 집단에 대한 평균적이거나 혹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들은 해당 문화에 속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선형적 지식(a priori knowledge)일 수밖에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평균적인 지식을 특정 문화 속의 개별적 주체에 적용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과대일반화(overgeneralized)를 범할 수밖에 없고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정한 문화적 간격을 만성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Johnson and Munch, 2009: 223).

셋째,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비판의 근거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Yuval-Davis, 2006). 점점 더 다양성이 확대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유형화는 주로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인(overarching) 구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인종이나 민족에 더하여 종교, 성적 취향, 계층, 지역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복잡하게 상호 교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이라면 과거의 실천 경험에서 얻은 사회복지사의 평균적 지식은 클라이언트를 사전적(in advance)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는커녕 클라이언트의 정체성을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Johnson and Munch, 2009: 226; Gross, 2000: 51).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비판은 문화적 역량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인식 불가능한 개념으로서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expert)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끝이 보이지 않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Armour et al., 2006: 26).

넷째,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 문화적 역량이 지식의 형태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상대적

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문화적 역량의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자기 인식(self-awareness)이다. 그런데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진영은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학교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인지적인 과정으로 획득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개인적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역사적으로 우호적이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경우 이러한 자기인식에 대한 교육은 강한 거부와 저항으로 귀결되기 쉽다. 최근 들어 미국의 사회사업 대학원에서는 인종과 관련된 다문화적 실천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백인 학생들의 경우 다문화교육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인해 자기인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Abrams and Gibson, 2007).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 사회복지실천에서 권장되고 있는 문화적 자기인식과 연관된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의 고양에 오히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지적, 정서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Pitner and Sakamoto, 2005).

(2) 윤리적 비판

문화적 역량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비판담론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문화적 역량을 소유하지 못한 전문가가 다문화적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억압과 폭력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속성 특히 평균적이고 정형화된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에 관한 지식의 속성에서 파생되는 규범적 모순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 역량의 억압과 폭력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적이고 과대 단순화된 지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을 사정하고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적으로 허용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써 이는 일종의 억압이자 통제과정에 해당하며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Dean, 2001: 624). 이러한 비판을 충실히 따르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화적 지식에 있어 전문가는 해당 문화 속에서 직접 삶을 체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자신이며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가진 지식의 권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남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문화적 역량에 대한 규범적 비판의 또 다른 갈래는 클라이언트 속한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해당 문화에 속한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Goldberg, 2000: 13). 사회복지전문가가 가진 특정 집단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지식은 앞서 인식론적 비판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평균적이며 유형화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우월성을 최대한 인정한다고 하면 문화적 역량은 다른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으로 표현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 사이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다문화주의적 입장은 차이인정 접근(recognition difference approach)이다(Sundar, 2009: 102). 그리고 이 입장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 원칙은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전문가만이 문화적으로 전문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 즉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you have to be one in order to understand one)”는 내부자 우선주의(insider doctrine)가 될 것이다(Merton, 1972). 그리고 만약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를 경우 가장 바람직한 다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은 인종 특수적(race-specific) 사회복지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Patni, 2006).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집단 간 문화적 상대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의 충돌과 긴장에 있다. 만약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보존이 문화적 역량의 기본적인 지향이라고 할 때 해당 문화의 정체성 가운데 그 문화에 속한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개인의 행복과 자기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사회복지 윤리의 가치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그 집단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의 외부, 즉 보편적인 인권이나 규범성에서 새롭게 찾아야만 하는 차이의 인정 논리와는 모순되는 규범적 교착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특정 집단이 가진 문화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이 그 사회의 불평등과 억압을 유지하는 사회정치적 힘을 희석시키거나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Uehara et al., 1996). 따라서 비판담론에 의하면 문화적 역량 개념 속에는 집단적 정체성의 존중과 개인적 정체성의 충돌이 본질적으로 내제되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인 논리나 기준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존재론적 비판

이상과 같은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과 규범적 비판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사회복지 영역에서 문화적 역량이라고 개념을 굳이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근거와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적 사회복지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역량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지식과 기술의 역할이 사회복지사가 개별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역량은 자신이 가진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화적 역량 개념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급진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정체성이란 무수히 많은 정체성의 구성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되고 통일된 형태의 문화 영역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역량 혹은 문화적 실천이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전통적인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이제 무수히 다양한 속성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개별 주체의 정체성으로 모두 환원되고 그 결과 특별히 문화적 역량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독특한 영역을 상정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general

social work) 가운데 하나의 분야 정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충실히 따른다면 사회복지사가 가진 문화적 역량은 사회복지전문직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실천 역량을 단순히 문화가 다른 클라이언트에 적용하는 것일 뿐이지 특별하게 문화적 역량이라고 개념화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역량의 핵심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전문적 관계를 건설해 나가는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량은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포괄적인 태도나 이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모든 사회복지 실천에 가장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고 간주될 것이다(Dean, 2001: 629).²⁾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회복지실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문화적 역량이라고 개념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사회복지 비판이론과 다문화주의

1) 사회복지와 비판 이론

위에서 살펴본 다문화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비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논의에는 사회복지 이론에 영향을 미친 비판 이론(critical theory), 그 가운데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 사회과학 전반뿐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사회복지 비판이론이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진행된 문화에 대한 접근과 그에 근거한 다문화주의 사회복지 실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대중적 개념인 다문화 역량에 그 비판의 초점을 집결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³⁾.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회복지 비판이론의 전통을 주도했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 계열은 그 이후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푸코의 사상에 크게 공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중심의 비판이론으로 크게 대체 된다(Allan, 2003: 32-52)⁴⁾. 이러한 전환이 발생한 이유는 보편적이고 추상적 차원의 구조적 접근을 지향하는 모더니즘계열의 비판이론이 그 동안 문화적 차이와 무관하게 주장했던 보편적 진리의 타당성에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더니즘적인 비판이

2) 문화적 역량의 존재론적 본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ue(2005: 14-15)를 참조하시오.

3) Gray와 Webb은 비판적 사회복지(Critical Social Work)와 관련된 입장을 분류하면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프랑크푸르트학파 계열의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과정을 통해 등장한 19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중심의 비판이론들을 포괄하여 좁은 의미의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으로 그리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정서를 고수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회복능력을 인정하고 자원제공의 적절함을 모색하는 입장들을 넓은 의미의 비판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Gray and Webb, 2009: 76-85).

4) 푸코의 사회철학이 사회복지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김기덕(2004)을 참조하시오.

론의 근거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다양한 맥락에서 상이한 집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실천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실천적 비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Fook, 2000; Healy, 2000).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사회복지 비판이론은 근본적으로 인간 주체가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주체들이란 자신들이 속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만 구체적으로 구성되고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지역적 차원에서 지배적인 담론에 저항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변화 추구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Allan, 2003: 47). 그렇다면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은 본 연구의 주제인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주요개념들이 문화, 지식, 권력, 자아, 억압,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미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분석하는 최근의 논문에서 Fawcett(2009: 120-123)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크게 지식과 권력, 자아에 대한 이해, 통합과 분절화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세히 논의한다. 먼저 지식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축적을 통한 전문적 지식(expert knowledge)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지식이 비판적 문제제기에 열려 있어야 하며 특정 지식이 다른 지식 보다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적 지식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권위 있는 주장이 아니라 권력관계와 혼합된 자의적 구성물으로써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self)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를 펼친다. 모더니즘은 통일적이고 본질적인(unified and essentialist) 자아가 분명하게 존재하며 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성을 유지하며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이 바라보는 자아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나가는 유동적이면서 분절적인 존재이다. 결국 모더니즘이 지속적으로 통합(unity) 혹은 단일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를 사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근원적인 토대나 본질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상이성이 연속적 병렬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문적 개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출발점이 하나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Gray and Webb, 2009: 80).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출발은 단일요소 혹은 전체성이나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장에 근거할 경우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모든 제도와 관습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은 “지배와 억압 그리고 착취 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을 수행하는 것(Fook, 2002: 18)”이며 이러한 실천은 특히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공간에서 작동하는 억압과 지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현실 공간에서 작용하는 억압과 지배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을 둔다.

2) 포스트모더니즘적 다문화주의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전통적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다양한 집단 간의 문화적 구별을 초월하여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대해 근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문화가 사회적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차이 맹목 접근(difference blindness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중립적 입장이 실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문화 간 차별과 배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통해 다양한 집단이 가진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차이 인정 접근(recognition of difference approach)'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이한 기원을 가진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미국적 정체성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용광로(melting pot)와 같은 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초기 미국의 다문화주의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후자의 사례로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정체성의 차이를 더욱 장려하고 격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들 수 있다(Sundar, 99-103).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스트모더니즘적 전환, 특히 차이와 관련된 데리다의 영향은 정체성의 정치학(identity politics)과 다문화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Hick, 2005: 43-45), 이는 당연히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접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이해는 문화를 "안정적이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의 집합"으로 보던 전통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표상 및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복잡한 관계에 관한 논쟁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었다(Yon, 2000: 9).

다시 말해 문화적 중립 접근이나 차이의 인정 접근이 전제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입장은 문화를 고정되고 통합적인 실체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실체가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문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다문화주의는 현대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문화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는 본질주의적 입장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문화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담론적인 존재로써 욕망과 언어와 표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주관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Pon, 2009: 64).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다문화주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급진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 본질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설정된 문화 간 위계질서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위계질서에 기초하여 자행되었던 문화 간 억압, 배제, 차별의 근거와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화 간의 우열을 극복하는 동시에 문화 주체들 사이의 미시적 권력관계를 폭로하려고 한다.

4. 문화적 역량 비판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장에서는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 담론의 주장들을 이들이 근거하고 있는 급진적 사회복지 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아울러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서 비판담론의 분류에 사용되었던 구분을 다시 활용하여 인식론적 차원, 규범적 차원, 실용적 차원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 인식론적 차원의 검토

(1) 문화적 인식의 내용: 무엇에 대한 역량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비판 담론들을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해 역량을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역량이라는 공격적인 개념을 폐기하고 무지(not-knowing)라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Dean, 2001).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은 본래 주관적이고 해석적이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식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 이와 같은 명확한 지식의 획득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문화주체의 상호인식과 관련하여 단순히 상대방 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확성만을 문제시할 경우에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의도하는 상호 인식의 내용을 무엇으로 상정할 것인가를 세분하여 살펴본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가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과 태도를 교류할 때 인식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규범적 수용은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언어학(social linguistic)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성과와 관련된 해석학적 발전을 보면 문화가 다른 주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각장의 의도와 태도에 대한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본다(Goldberg, 2000: 16).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된 타문화의 내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사실의 문제와 정당화의 문제를 혼합하여 생각하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문화적 역량의 문제는 보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을 문화에 대한 이해 측면과 정당화 측면을 엄격히 분류할 수 있는 반성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타인의 문화에 대해 자신의 선입관과 문화를 남용하여 자신만의 주관적 견해를 억압적으로 정당화하

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정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자기결정이라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원칙과 이상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호교류를 통해 얻어진 지식(knowledge)을 타문화에 속한 개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 즉 정당성과 관련된 도구로써 억압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예비적 지식과 잠정적인 가정 정도로 성찰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맥락: 문화의 다중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인가?

사회복지전문직의 문화적 역량은 인식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비판담론의 또 다른 근거는 문화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과 다중 정체성(multi-identities)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의 문화적 정체성은 과거와 같이 특정 인종 혹은 특정 민족에 고유한 태도, 이념, 생활방식과 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무수한 요소들, 즉 민족, 인종, 성, 연령, 계층, 거주지, 직업 종류, 취미 등의 요소들이 중첩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합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하게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은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역량개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사가 문화적 역량으로 충분히 학습하고 익혀 감당하기에는 문화적 다양성의 조합과 유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Gross, 2000: 51; Dean, 2001: 65).

이러한 주장 역시 일견 문화적 역량의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클라이언트라는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삶을 과도하게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직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문화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서 논의를 전개한 결과이다(Nylund, 2006). 달리 말해 문화를 완전히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여 한 인간이 특정 문화 집단에 속할 경우 영원히 그 정체성이 고정된다는 것도 과잉 결정론이지만 문화를 탈맥락화하여 이해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자유적이고 급진적인 발상이다. 다시 말해 문화는 완전히 고립되어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기도 한다(Lo and Stacey, 2008). 따라서 문화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반복적인 사회적 제도와 관습 속에서 일정정도의 반복성을 띄면서 개인들의 태도와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화와 사회는 변화를 거듭하겠지만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절화(fragmentation)와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비판적 사회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 계급, 인종과 같은 사회적 분열에서 몇몇 우세한 요인들이 역사적인 점성(tenacity)을 가지고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alby, 1992). 만일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인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이 인식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이 구축될 수 있는 토대는 당연히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윤리적, 규범적 차원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급진적 입장과 같이 문화를 행위, 생각, 믿음의 근원을 이루는 포괄적 실체(overarching existence)로 보고 상이한 문화에 속한 주체가 다른 문화에 속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타인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든지 아니면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문화 속에서 비슷한 문화적 구성을 가진 주체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⁵⁾. 문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결론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실천적 개입은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먼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에 대한 이해 역량이 없으면서 집단적 정체성은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설 경우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문화적 집단에 속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문화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만일 이와 같이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은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본질주의적 다문화주의와 매우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면서 본질주의적 다문화주의에게 쏟았던 비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복지전문직만이 문화적 역량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이와 같은 특정한 문화 중심의 실천이 지속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사회에서 해당 특정문화집단은 더욱 고립화될 것이며 이러한 고립은 전체사회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형화된(stereotyped)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의 결과는 문화라는 것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담론 자신의 전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동일한 인종을 별도로 배치한 사회복지서비스 부서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점점 소외되어 고립되고 있다는 경험사례도 보고되고 있다(Patni, 2006).

상이한 문화에 대한 완벽한 이해의 불가능에 근거하여 문화적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집단 내의 개인의 행복과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여 절대화한다면 해당 집단의 정체성이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범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모든 규범적 논의에서 문화가 최우선에 자리하는 문화적 우월주의(cultural chauvinism)로 전락하게 된다.

5) 실제로 영국에서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사이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문화적 구성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인종이 동일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정책(race-specific cultural competency)을 펼쳐오고 있다(Patni, 2006).

이러한 점은 전통적으로 개별화를 통해 개인에 대한 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집단과 사회 차원의 부정의와 억압에 저항하여왔던 전문직의 역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적 옳음(culturally correct)과 전문적 적절성(professional suitability)의 충돌(Patni, 2006: 167)이라는 규범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집단 간의 문화 차이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체성을 너무 고정된 것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정한 요소들이 집단 내에서 차이와 억압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결합방식에 대해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집단 내 개인에 대해 윤리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Abu-Laban, 2002).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최근 들어 미국의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역량이란 단순히 개인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수한 문화의 내부 뿐 아니라 문화들 사이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쟁점을 면밀히 고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Parrott, 2009: 61).

만약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급진적으로 이해하여 문화적 정체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무한한 조합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역량의 모색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집단 차원의 문화 정체성(cultural group identities)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무수한 개별적 주체만이 고립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주체들의 자기 정체성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부당한 권력 작용으로 간주하여 부정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그 어떠한 개입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인식론적 허무주의(epistemological nihilism)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사회복지전문직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너무 급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물질적 불평등과 불의를 간과하거나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Allan, 2003: 50), 이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을 전문직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로 지향하여 왔던 사회복지전문직의 역사와 온정적 개입주의 전통(paternalistic interventionism)을 통째로 부정하는 반규범적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 문화적 역량 개념의 규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급진적 사회복지 이론 역시 자신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판의 논리와 유사한 비판을 모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급진적 비판주의가 보일 수 있는 극단적인 도덕 상대주의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더욱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실용적 측면

(1) 문화적 역량의 구현방법: 역량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비판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비판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Williams, 2006: 215). 이들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다문화적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전문가가 자기의식의 고양을 통해 열린 마음을 견지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나 방법론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신이 상정하고 있는 보다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나 명확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Ife, 1997)과 연계된다. 실제로 푸코식의 사회복지 비판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 모습은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다양한 장에서 복잡하게 상호 권력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블랙박스(black box) 속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권력 작용과 억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McBeath and Webb, 2005: 172).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의 주체라고 전제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사 역시 자신과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Iglehart and Becerra, 2007: 51).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이라는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에게 부합하는 실천 개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스러운 제안으로서 비윤리적일 수 있다.

(2) 문화적 역량의 실천 주체: 누구에 대한 누구의 역량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비판 담론의 핵심 주장은 사회복지사는 결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직 관계에서 언제나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이며(the client is the “expert”),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만 하는 “역량 부족”(the lack of competence)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Dean, 2001: 624; 강조는 원문).

이러한 주장 역시 기본적으로는 매우 타당하다. 그 누구도 집단적 정체성이 다른 타인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 당사자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만약 문화적 역량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단선적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비판담론의 주장과 같이 언제나 클라이언트가 역량의 주체이고 사회복지사는 영원히 역량의 부족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직이 위치하는 사회적 맥락과 전문직의 역할을 고려해 보면 클라이언트 당사자 혹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의 내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적 수월성이 있다든지 혹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실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는 힘들다(Headland, Pike and Harris, 1990; Williams, 2006에서 재인용). 다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의 정의에 의

하면 사회복지전문가는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의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이한 문화적 환경과 맥락 속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문화적 실천 현상은 클라이언트와의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놓여있는 사회적 맥락이며 실천의 핵심 역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사회적 체계 속에서의 적절한 개입이나 실천인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속해있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체계 역시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환경이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클라이언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있어 문화적 정체성은 문제의 출발점이자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의 원인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와는 무관한 사회적 구조일 수 있으며 경우 이러한 복합적 원인과 사회적 맥락의 파악은 클라이언트나 일반 사회구성원보다 사회복지사가 훨씬 앞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Williams, 2006: 218).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사회복지전문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역량은 당연히 당사자인 클라이언트에 비해 충분하지 않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 속의 다른 지지체계나 행위 주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전문직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 고려할 때 그 비교 대상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일반 사람 혹은 사회체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탈억압전략을 강력히 비판하는 견해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제공자의 의식고양이라는 두 가지 전략만으로 전문직 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와 억압을 철폐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노력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McBeath and Webb, 2005: 167-186).

무엇보다 권력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의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복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만연하는 것이다. 즉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권력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전문직 관계가 권력으로부터는 벗어 날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가 곧바로 권력관계를 철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둘 사이의 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권력관계를 규명하거나 해체하는데 있어 상호 협력할 수도 있다(Hick, 2005: 47-48).

이상과 같이 인식적, 윤리적, 실용적 차원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복지전문가의 문화적 역량은 일정정도 구성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전문가가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역량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나 일반인들에 비해 인식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클라이언트의 문화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실천전략의 모색과 결정에 대한 역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규정하는 사회적 실체가 가진 어느 정도의 점성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문화적 해석에 대한 이념과 태도를 넘어 지식과 기술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안

1) 연구의 결과와 함의

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미국의 사회복지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비판은 과연 적절한가를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으로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 담론의 중심에는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비판적 사회철학의 한 갈래인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문화와 문화적 실천에 대한 입장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다문화주의는 그 동안 다문화주의를 지배하여 왔던 모더니즘적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시도하면서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문화적 유형 구분의 기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아울러 문화적 정체성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실체로 파악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권위는 이를 직접 경험하는 개별 주체의 체험과 주관적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다문화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역량의 개념과 위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의 복합으로 구성되는 문화적 유형은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문화적 지식과 기술의 유효기간을 극도로 축소시킬 뿐 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전문가를 사회복지사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개입의 판단과 결정에서 전문적 역할을 행하던 사회복지사의 위치는 다문화적 공간 속에서는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력자에 그치고 만다. 문화적 역량의 소유 주체로 간주되던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적 실천의 첫걸음은 반대로 문화적으로 역량이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다원성과 유동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역량이 가진 억압적, 권위적 관계를 해체하려고 한 급진적인 문화적 역량 개념이 이룩한 이념적, 실천적 성취는 억압적 관계의 해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절반의 성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판이 해체시킨 문화적 역량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하여금 가시적이고 평가 가능한 개입의 모델이나 전략모색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량의 주체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로 축소하여 과도하게 대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비판적 반성(critical reflection)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구성과 해체과정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Gray and Webb, 2009: 83)을 면하기는 힘들고,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이고 제도

화된 억압에 대한 문화적 역량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Abrams and Moio, 2009; Nybell and Gray, 2004)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최근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그 전망을 볼 때 어떠한 형태와 내용을 갖게 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한국의 사회복지도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와 적용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 미국의 다문화 역량 논쟁을 다룬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의 문화적 역량의 모색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가 추구하여야 할 문화적 역량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의 목표와 실천방법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적 역량의 전제가 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입장 즉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철학이자 이념이다(Sundar, 2009: 98).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해당 사회가 다문화사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기술적인(descriptive)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그 핵심은 다문화적 현상에 대해 사회는 어떠한 대응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규범적 측면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역량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가 다문화사회에 대해 어떠한 규범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문화와 관련된 집단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집단 내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관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진행된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역량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문화적 역량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함께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계를 맺고 반응하는 사회적 맥락과 제도와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사회에서 클라이언트가 갖는 문제의 본질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정체성이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반응하는 사회의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편적 주류 문화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 소수자 집단 혹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조직, 구조 차원의 대응과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셋째, 문화적 역량의 내용과 전략에 대한 모색은 일련의 단계적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역사는 문화와 문화적 집단에 대한 사회의 대응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위상도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주의 사회복지실천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시 말해 한국의 다문화주의 역시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통합의 지향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집단의 정체성 존중과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다문화적 사회복지 실천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이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회복지사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적 자료에는 클라이언트가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강화된 역량을 통해 자기 삶을 결정해 나가는 능력의 고양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이상이지만 이러한 이상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세부전략과 목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덕. 2004. “푸코와 사회복지: 인본주의에 대한 미완의 기획”, 『사회복지연구』 24: 45-72.
- 김범수 외. 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김연희. 2007.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연희. 2006.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가족사회복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1-164.
- 민성연. 2008.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1-28.
- 최명민 외. 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 최소연. 2010. “원조전문직을 위한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3-53.
- 최원희·최혜지·최연선. 2008. “다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화적 유능감 실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89-113.
- Abrams, L and J. Moio. 2009. “Critical Race Theory and The Cultural Competence Dilemma in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5(2): 245-261.
- Abrams, L and P. Gibson. 2007. “Reframing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ing white privilege in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3(1): 147-160.
- Abu-Laban, Y. 2002. “Liberalism, multiculturalism and the problem of essentialism”, *Citizenship Studies* 6(4): 459-82.
- Allan, J., B. Pease, and L. Briskman (Eds.), *Critical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 practice*. Allen & Unwin.
- Allan, J. 2003. “Theorizing Critical Social Work, pp. 32-52, in *Critical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 practice*. edited by J. Allen, B. Pease and L. Briskman, Allen & Unwin.
- Armour, M., P. Bain, and R. Rubio. 2006. *Education for cultural competence: Tools for training field instructor*. CSWE.
- Bonder, B., L. Martin, and A. Miracle. 2001. “Achieving Cultural Competence: The Challenge for clients and health care work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n Aging* 25: 35-42.
- Creswell, J.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 CSWE. 2003. *Handbook on accredi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uthor.
- Dean, R. 2001. “The Myth of Cross-Cultural Competence”, *Families in Society* 82(6): 623-630.
- Headland, T., K. Pike, and M. Harris (Eds.), 1990. *Emics and Ethics: the insider/outsider debate*.

Sage.

- Hick, S., J. Fook, and R. Pozzuto (Eds.), 2005. *Social Work: A Critical Turn*. Thompson Education Publishing.
- Iglehart, A. and R. Becerra. 2007. "Ethnic-Sensitive Practice: Contradiction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16(3): 43-63.
- Ife, J. 1997. *Rethinking Social Work: Towards Critical Practice*. Longman.
- Johnson, Y. and S. Munch, 2009. "Fundamental Contradictions in Cultural Competence", *Social Work* 53: 220-232.
- Fawcett, B. 2009. "Post-Modernism", pp. 119-128. in *Social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M. Gray and S. Webb, sage.
- Fook, J. 2002. *Social Work: Critical Theory for Practice*. Allen & Unwin.
- Goldberg, M. 2000. "Conflicting Principles in Multicultural Social Work", *Families in Society* 81(1): 12-21.
- Gordon, M. 1978. *Human Nature, Class, and Ethnicity*. Oxford University Press.
- Gray, M and S. Webb, 2009. "Critical Social Work", pp. 76-85 in *Social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M. Gray and S. Webb, sage.
- Gross, G. 2000. "Gatekeeping for Cultural Competence: Ready or Not? Some Post and Modernist Doubts", *Journal of Baccalaureate Social Work* 5(2): 47-66.
- Gutiérrez, L., M. Zuñiga, and D. Lum, 2004.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Critical Viewpoint and Future Directions*. CSWE.
- Healy, K. 2000. *Social Work Practice: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change*. Sage.
- Hick, S., J. Fook, and R. Pozzuto (Eds.), 2005. *Social Work: A critical turn*. Thompson Educational Publishing.
- Lo M. and C. Stacey. 2008. "Beyond Cultural Competence: Bourdieu, Patients and Clinical encounters",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0(5): 741-755.
- Lum, D. 2007.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verse Groups and Justice Issues*. Thomson.
- McGoldrick, M. et al., (Eds.). 2005.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Guilford Press.
- NASW. 2001. NASW standard for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http://www.naswdc.org/pubs/standards/cultural.htm>
- NASW. 1996. NASW Code of Ethics. Author.
- Nybell, L. and S. Gray. 2004. "Race, Place, Space: Meaning of Cultural Competence in Three Child Welfare Agencies", *Social Work* 49(1): 17-26.
- Nylund, D. 2006. "Critical Multiculturalism, Whiteness, and Social Work: Toward a More Radical View of 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17(2): 27-42.
- Parrott, L. 2009. "Constructive Marginality: Conflicts and Dilemmas in Cultural Competence and Anti-Oppressive Practice", *Social Work Education* 28(6): 617-630.
- Patni, R. 2006. "Race-Specific Vs. Culturally Competent Social Workers: The Debates and Dilemmas Around Pursuing Essentialist or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0(2): 163-174.

- Pinter, R and I. Sakamoto. 2005. "The Role of Critical Consciousness in Multicultural Practice: Examining How Its Strength Becomes Its Limit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4): 684-694.
- Pon, G. 2009. "Cultural Competency as New Racism: An Ontology of Forgetting".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20: 59-71.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1997). *Cultural competence guidance for Native American Populations*. The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 Sue, D. 2005.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John Wiley & Song.
- Sundar, P. 2009. "Multi-culturalism", pp. 98-108, in *Social Theories and Methods*, edited by M. Gray and S. Webb. sage.
-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p. 25-74, in *Multiculturalism*, edited by C. Taylor and A. Gutman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74.
- Uehara, E. et al. 1996. "Towards a value-based approach to multi-cultural social work". *Social Work* 41(6): 613-623.
- Walby, S. 1992. "Post-post-modernism? Theorizing social complexity." pp. 31-52, in *Destabilizing Theory: Contemporary feminist debates*, edited by M. Barrett and A. Phillips. Polity.
- Williams, C. 2006. "The Epistemology of Cultural Competence", *Families in Society* 87(2): 209-220.
- Yan, M, and Y. Wong. 2005. "Rethinking self-awareness in cultural competence: Toward a dialogic self in cross-cultural social work", *Families in Society* 86: 181-188.
- Yon, D. 2009. *Elusive culture: Schooling, race, and identity in global tim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Yubal-Davis, N. (2006). "Intersectionality and Feminist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Womens's Studies* 13(3): 193-209.

Social Philosophical Analysis of Critical Discourses on the Cultural Competence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It is very interesting phenomenon that despite a broad consensus on the need for social worker to take cultural aspects into professional practice, thus to be a culturally competent, a number of materials criticising the concept of cultural competence have emerged in these days simultaneousl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clarify such phenomenon, which means that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contents of such critical discourse on cultural competence and the validity of those contents.

The result of the study finds out that most of the argument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spects: epistemological, ethical, ontological, and that most of the main ideas of the critical discourses have been borrowed from a branch of critical social work theories, especially highly influenced from Foucault and Derrida.

This article argues that critical discourses have some significant problems which make a conflict with traditional values and tenets in social work as a human service profession. First, epistemologically, the critical discourse fails to differentiate the matter of discovery from that of justification, which brings the cultural competence to the brink of agnosticism. Second, ethically, insisting that there should be no foundational criteria for cultural hierarchy in term of rightness or goodness, the critical discourses reveal their intrinsic limitations in solving ethical dilemmas and conflict in real world,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evasion of responsibility in disguise of cultural relativism. Third, in practical vein, critical discourses are largely in effective in specifying the concrete model to realize their own ideas, and furthermore they unintentionally promote context-blind perspectives that eclipses the significance of structural and systematical impacts on the cultural identity.

Key words: Cultural Competence, Critical Social Work Theories, Postmodernism, Multiculturalism.

[논문 접수일 : 11. 05. 02, 심사일 : 11. 05. 09, 게재 확정일 : 11. 06. 01]